

“적조피해 양식장 방류 치어 보상이 올려 달라”

여수시 정부 실질적 지원대책 건의 시의회는 적조방제센터 건립 촉구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방류 치어에 대한 보상이 인상과 국립적조연구방제센터 건립 등 근본적인 적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충석 여수시장은 지난 10일 남면 화대, 화정면 월호해역 등 여수 적조 현장을 방문한 손재학 해수부차관에게 치어를 방류시 해당 치어에 대한 보상이 인상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수시의회도 근본적 적조 대책의 일환으로 여수에 ‘국립적조연구방제센터’ 건립을 건의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10일 건의문을 통해 “적조는 어민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자연재앙인 만큼 사후 땀집식이 아니라 발생 전에 대비하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건의문은 이날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에 발송됐다.

시의회는 “적조연구방제센터 건립은 남해안의 대표 해양도시인 여수

가 적지”라며 “센터가 세워지면 적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방제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995년 국내에서 첫 적조 발생 이후 전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방제센터 건립 취지를 강조했다.

또 “최근 해양수산부의 양식어류 방류시 보상 방침은 어류 집단폐사 예방책으로 환영하나 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민들이 방류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며 보상이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 적조 대책으로 어민들이 자기 어선을 운항, 스쿠루를 이용한 방제작업에 나서면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조 방제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적조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양식장에 차광막(그늘막)을 설치해 수온을 떨어뜨리고 양식어가에 산소공급기 공급과 함께 어장정화선을 동원해 적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무타감바 마리아(왼쪽) 우간다 관광부장관이 최형식 담양군수로부터 대나무 선물을 받고 있다. (담양=채경)

대나무 보러 담양 찾은 우간다 여성장관 竹뿌리 5종 선물받고 싱글벙글

아프리카 우간다의 여성 장관이 난생 처음보는 담양 대나무의 매력에 푹 빠졌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아프리카 우간다의 무타감바 마리아(여) 관광부장관 일행이 지난 8일 대나무를 보기 위해 담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마리아 관광부장관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가의 날 행사인 ‘우간다의 날’에 초청돼 바쁜 일정을 보내던 중 우간다에서는 볼 수 없는 대나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방문단은 담양의 대나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죽녹원과 한국대나무박물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대원차를 시용하는 등 담양의 잘 보존된 자연 경관과 대나무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우간다의 산림이 둔벌이 수단으로 무차별 채벌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담양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한 생태환경 보존 방침과 개발정책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 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방문단에 대나무 뿌리 5품종(맹종죽, 분죽, 왕대, 오죽, 검죽)을 선물하고 “대나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훼손은 최소화하는 친환경 박람회(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꼭 참석해달라고 초대의 뜻을 전했다.

이에 마리아 장관은 “담양의 잘 보존된 대나무와 생태환경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대나무의 뿌리를 선물 받아 기쁘고 차후 담양군과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리아 장관은 2012년 관광부장관에 취임하기 전 12년간 환경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탐사총회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존에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담양=채경기자 jgg@



강진 남미특사에 활짝 핀 ‘빅토리아 연’ 강진군 군민들의 남미특사에 원산지인 희귀한 ‘빅토리아 연’이 최근 활짝 피어 눈길을 끌었다. ‘밤에 피는 연꽃’이라 불리는 빅토리아 연은 꽃잎이 개화 이틀만에 지고 연잎 지름은 90~180cm로 어린이가기 앞 위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 특징이다.

전남청소년 여름방학중 중·일과 잇단 국제 교류

전남도는 여름방학 동안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청소년 문화포럼과 전남-장시성 청소년 교류 및 교육협력 협약체결, 전남-저장성 청소년교류 활동 등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일본과의 교류사업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청소년 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마련한 이 포럼은 내년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오는 16일에는 사가현 청소년 30명이 5일간의 일정으로 전남도를 방문한다. 이들은 순천정원박람회 사가현의 날 참가, 흡스테이, 왕인박사유적지, 순천 낙안읍성 등 문화체험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7일 전남도청에서 ‘전남-장시성 청소년교류 및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한·중 청소년 우호교류

방문단을 매년 상호 교환하고 학교 간 자매결연, 교사연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청소년 30명이 지난달 장시성을 방문한데 이어 장시성 청소년 30명이 9월말 전남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저장성 청소년 30명은 지난 8일부터 전남도를 방문, 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전남에 머물면서 흡스테이와 순천정원박람회, 왕인박사유적지, 보성녹차밭 등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 국장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 양국 우호 교류의 초석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벼 키다리병 발생면적 4만ha 육박

전남도내 벼재배면적의 22.7%...올 수확량 최대 40% 줄어들 수도

‘농도(農道)’ 전남지역에 벼 키다리병 발생면적이 4만ha에 육박하는 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래없는 폭염에다 마른 장마로 벼 키다리병이 활성화하는데 최적의 기상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풍년 농사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발생면적은 전체 17만1000여ha의 22.7%인 3만8800여ha에 달하고 있다. 조사 시점이 지난 6월인데 만만 최근에는 피해 발생면적이 훨씬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초 못자리 발생률도 전년 3.2%에서 9%까지 치솟았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못자리 단계에서 발생률이 10%에 육박한 만큼 본답(本畓)에서는 피해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밖에 없다.

현재 키다리병은 벼 1모작은 물론 2모작에서도 급속히 확산된 상태다.

더욱이 이삭이 피는 출수기(出穗期) 때 병원균인 곰팡이 포자가 다른 벼로 옮기는 등 면적이 크게 늘 우려가 크다.

벼 키다리병은 모내기 이전 철저한 종자 소독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한번 발생하면 마땅한 방제가 여의치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

특히 도내 벼 재배면적 가운데 약 35%를 쓸 수 없는 친환경 면적이 35%인 6만3000여ha의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 수 밖에 없다.

주요 종자 속에 있는 곰팡이로 발병하는 벼 키다리병은 벼 못자리가 심해 못자리 초기부터 말라죽거나 감염 정도에 따라서 모내기 이후까지 발생, 벼가 제대로 익지 않는 등 심하면 수확량이 최대 40% 이상 줄어든다.

올해 벼 키다리병에 걸린 벼씨를 내던 종자로 사용하게 되면 다시 피해가 이어지는 등 벼농사에서 최악의 고질병 중 하나다.

전남도농기원 친환경연구소 신길호 박사는 “모내기 전 종자소독을 철저히 한 농가는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만큼 종자소독이 중요하다”며 “일반 재배 농가는 출수직전에 복합살균제 등 적용 약제를 사용,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를 방문한 중국 저장성 학생들이 지난 8일 환영회에서 전남도 관계자와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나주 긴급복지지원기준 연말까지 완화

나주시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완화 폭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의 차상위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화재,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나주시는 지난 6월 5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에서 탈락한 가정 등 법적기준에는 부적합하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손질했다.

긴급복지지원에 현장 확인 후 선지원을 하고 사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 중단 및 비용환수 등으로 부정수급을 가려낼 방침이다.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나주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지리산 노블랜드

잔여세대 분양중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썬게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